

이 글은 어느 오르비언의 쪽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생운 시험 간단한 총평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수능 생운에 대한 총평입니다.

우선 (1) 논란이 되는 3번 <보기> ㄱ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적고 (2) 전체적인 총평과 문항별 확인 사항을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논란이 되는 3번 <보기> 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 보 기 > —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사상가와 관련되는 문제는 최소한 2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 사상가의 뇌피셜

2단계 : 출제자의 뇌피셜

1단계는 사상가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일 수도 있고요, 핵심 개념일 수도 있고, 논리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수능은 발문-제시문-선지로 구성됩니다. 특히 사상가의 내용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제시문'과 '선지'로 선택하고 재구성합니다(필요하다면 변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1단계.

이 단계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두 글을 참고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https://orbi.kr/00019196265>(불과증치갓)

<https://orbi.kr/00019220347>(별들의 고향)

적어도 1단계 수준에서 그 선지는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가 원전(정확히는 번역본)에서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100% 정답이라고 결론내리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더 따질 것이 있는데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2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2단계로 넘어가죠.

이 단계에서는 출제 의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 이 단계에 대한 논란입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예외 없음(이다)'이 아니라 '예외 있음(일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 문제 :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문제제기 :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제기에 대해 저는 '과잉' 또는 '오독(誤讀)'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왜 '일 수 있다(예외가 있음)'를 생각했을까?

우선 '이다'(전환시킨다)라는 선지를 보고 '이다'가 아니라 '일 수 있다'로 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내적 근거와 외적 근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근거가 제시문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배우는 개념이나 지식들은 외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 근거는 보통 1단계에서 여러분이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외적 근거 즉 1단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외적 근거

① 니부어에 대한 지식인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사상가인 니부어가 '이다'가 아니라 '일 수 있다'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다'와 '일 수 있다'의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것은 1단계와 관련된 부분이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강사나 ebs의 오류인가?

그게 아니면 외적 지식으로 어느 강사가 여기서 '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일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 강사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문제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평가원의 몫이 아니라 이 강사분의 몫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강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19-6평-13번 해설이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국가 간 정의는 개인의 이타심으
 린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니부어는 자신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비이기적인 태도가
 오히려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②

그러나 이 해설이 오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 과정에서 보자면 이
 해설은 19-6평-13번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해설을 기억해 내고 '이다'가 아니라 '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수험생
 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뒤에 계속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ebs 해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것과 만약 ebs 해설 때문
 에 틀렸다면 그것은 ebs에 따져야 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원은 ebs 문제 해설
 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내적 근거

① 제시문 근거

내적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O라고 해도, 제시문이 X
 이면 X를 골라야 합니다. 그게 제시문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다'가 아니라 '일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제시문 근거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다'(예외 없음) VS '일 수 있다'(예외 있음)를 구분시키는 부분이 있
 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아래 글이 논란이 되는 문제의 제시문입니다.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총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2)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
 다.

(3)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적어도 이 글을 보고 '이다' VS '일 수 있다'를 생각해 내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이다'가 아니라 '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제시문에 근거한 접근은 아니라는 겁니
 다.

만약 문장 (3)의 '될 수 있다'를 보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실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외가 있다/없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장 (3)이 <보기> ㄱ의 출제 근거라고 단정짓기에는 내용적으로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논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② 선지 근거

제시문에 없더라도 수험생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지 조합 또는 선지 구성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다’와 ‘일 수 있다’는 구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다른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무작정 구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시문과 선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아래 문제를 볼게요.

19-6평-13번입니다. 선지의 구성(서술어 부분)을 잘 봐 주시길 바랍니다.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 ③ 국가 간 이해 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선지 ①~④는 단정형입니다. 그런데 ⑤만 단정형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때 우리는 ‘왜 선지 ⑤만 다르지’라는 고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 ⑤에 대한 오답률이 11%여서 제가 문제 풀이 할 때 이 선지를 틀린 분들은 선지 ‘조합’에 대한 감(感)이 너무 없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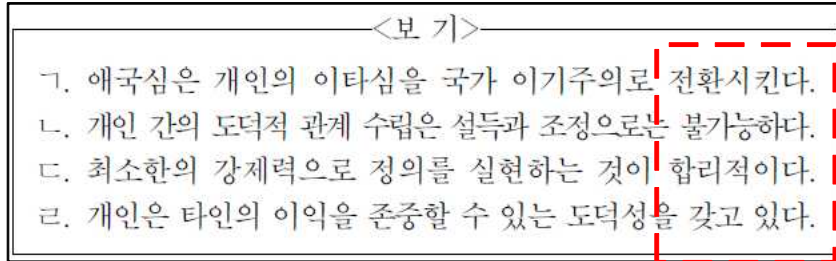
실제 이 경우에 선지 ⑤는 그럴 가능성을 따져보면 됩니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 ①, ②, ③, ④를 여러분들이 ‘이다’와 ‘일 수 있다’로 구분해서 고민하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우리는 선지 ⑤가 왜 나머지 4개와 다른지를 고민할 수는 있어도 왜 나머지 선지

4개가 선지 ㉔와 다를까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를 보죠.



<보기>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 수 있다’와 ‘이다’를 고민해야 할 어떤 부분을 찾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의문이 생깁니다.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아래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 않나요?

- 나.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해야 함(가능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 다. 합리적이다가 아니라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해야 함(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 라. 갖고 있다가 아니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해야 함(갖고 있지 않은 개인들도 있을 테니까.)

결국 Zola의 판단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이 제시문과 <보기> 그리고 니부어 지식 어느 것에서도 논증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저의 해석(졸피설)을 추가하겠습니다.

2. Zola의 해석

이 문제를 ‘예외 있음’과 ‘없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교사의 역할(기능)’을 아래처럼 제시하였습니다.

- (1) 학생에게 숙제를 부과한다.
- (2)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만약 어떤 분이 학생에게 숙제를 부과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를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으니까 아래처럼 제시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1) 학생에게 숙제를 부과시킬 수 있다.(부과한다X)
- (2) 학생에게 청소를 시킬 수 있다.(시킨다X)

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외가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

합니다. 그게 쟁점이나 논쟁 혹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논란이 되는 ㄱ 선지를 다시 보죠.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이 선지의 주제는 애국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교사의 역할을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다고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듯이 애국심의 역할을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고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3. Zola Guide

공부는 잘 해도 시험을 (공부실력만큼) 잘 보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판단('이다'가 아니라 '일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에 대해 자기 점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면 될까요?

(1) 자신의 배운 내용에서 점검하기!

저는 백지 복습을 강조하는 강사입니다. 현장에서 성적 낮은 애들이 상담 오면 반드시 백지 복습을 시켜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학습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지 복습은 말 그대로 백지에 여러분의 머릿 속에 있는 것을 재생하는 겁니다. 롤스에 대해 아는 대로 써 봐라 정도가 백지 복습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백지에 니부어에 '이다'와 '일 수 있다'를 구분하는 지식이 있던가요? 그게 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지식을 가르친 어떤 존재에게 따질 문제이죠.

(2) 교과서 확인하기

백지 복습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런 것을 따졌던가요?

(3) 제시문과 선지 확인하기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4) 대립 개념 확인하기

아마 논리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나름 유용한 tip이기도 합니다. 대립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사문같은 '개념'형 과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생운에서도 유용할 겁니다.

아래 기출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평-12번 문제의 선지 ㉟에 설명의 대상입니다.

1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갑



을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어떤 수강생이 문제를 틀렸길래 왜 틀렸느냐고 하니, 선지 ④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넘어 갔는데, 선지 ⑤의 '공적' 정의가 신경이 쓰여서 틀렸다고 하더군요. 아마 시험장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헛갈리는 부분에 밑줄을 긋구요, 그 부분의 대립(반대) 개념을 만들어 보십시오.

선지 : 공적 정의

대립 : 공적 정의가 아닌(사적?) 정의

자 그러면 여러분은 2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1) 배운 내용인가?

우리가 공적 정의와 사적 정의를 구분하는 것을 배웠던가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교과서와 기출, ebs 수특·수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2) 내용은 타당한가?

선지를 이용하면 '사형제는 공적 정의가 아닌(사적) 정의인가?'입니다. 그런데 사형제 혹은 형벌은 국가(정부, 사회)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냐요? 그러면 사형제를 공적 정의가 아닌(사적) 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1)이든 (2)이든 선지 ⑤의 '공적'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같은 방식을 <보기> 7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신이 헛갈리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의 대립 개념을 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혹은 그 내용은 타당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열공+즐공=대박!!!